

고흥군, 노인 일자리 5천200여명 모집 ‘역대 최대’

207억 투입...‘대기자 無 일자리’ 목표

오는 5일까지 공익 등 3개 분야 접수

내년 1월 본격 착수...활기찬 노후 기대

고흥군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총 207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참여자 5천20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아 ‘대기

자 없는 노인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집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5일까지다.

모집 분야는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인원인 4천500명을 모집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6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지역연급 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들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야외 공공시설 관리, 우리 마을 자원 재활용단, 해수욕장 환경관리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월 30시간 활동 시 29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436명을 선발한다. 활동성 있는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취약계층 돌봄 지원, 일자리 현장 운영 지원, 노인시설 운영 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76만1천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끝으로 250명을 모집하는 ‘공동체사업단’은 제조·판매형 사업이나 카페 운영 등 시장형 일자리다. 사업단별로 근무 시간과 급여 체계가 상이하며, 기본 급여(월 25만원)에 수익금에 따른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관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3곳(대천노인회 고흥

군지회, 고흥시니어클럽, 고흥군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중복 참여하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 세대 구성, 활동 역

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득점자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한 뒤, 오는 12월 말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활기찬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준비했다”며 “조건에 맞는 모든 어르신이 대기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담양 메타랜드 성탄절 ‘산타마을’로 변신

24~25일 ‘제7회 담양산타축제’

캐럴 합창·임창정·왁스 등 공연

입장권, 지역상품권 환급 행사도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이 울겨울 크리스마스를 맞아 낭만 가득한 ‘산타마을’로 변신한다.

1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메타랜드 일원에서 ‘제7회 담양산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우리 누군가의 산타’를 슬로건으로 가족, 연인, 친구 등 모든 방문객이 따뜻한 겨울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축제의 주 무대인 메타광장에서 담양 어린이들의 캐럴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임창정, 왁스, EDM DJ 등이 출연하는 화려한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25일에는 그룹 노이즈와 지역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이어간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가족들이 화로에 둘러앉아 마시멜로와 옥수수 등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 하우스’가 운영되며, 미니 게임과 포토 이벤트와 LED 조명등과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되는 등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특히 메타랜드 전역은 화려한 야간 조명과 포토존으로 꾸며져 겨울밤의 낭만을 더하고, 입구의 대형 별 조명을 비롯해 산타 액자, 눈사람 조명, 대형 트리 등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인생 사진’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밖에 군은 축제 기간 축죽원과 메타세쿼이아길 입장권을 구매한 방문객에게 이를 ‘지역



지난해 12월 열린 ‘담양산타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축제를 즐기고 있다.

〈담양군 제공〉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들은 상품권으로 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지역 상가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산타축제는 아이

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다”며 “연말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담양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읍·면 주민 참여...공연·체험 등 다채

구례군은 “최근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한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성과발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올 한 해 운영한 문화 프로그램의 결실을 지역민과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주민들은 라인댄스, 난타, 아랑장구 등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행사장 한편에는 서예, 보타니컬 아트, 스마트폰 사진 작품 등이 전시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구례읍과 마산면은 성과발표회(사진)와 함께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 의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발표회는 주민들이 1년간 땀 흘려 준비한 성과를 나누고 마을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와 긴밀히 소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 주도형 자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제1회 광양항의 날 오는 5일 개최

유공자 표창·어린이 투어 등 다채

광양시가 개항 이래 처음으로 ‘광양항의 날’을 기념하고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제1회 광양항의 날’ 기념식 및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양항의 중요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항만 활성화 유공자 표창과 관내 항만 물류 기업들의 기탁식이 진행되며, 2부 특강에서는 전 MBC ‘100분 토론’ 진행자이자 130만 유튜브인 김지운 박사가 연단에 오른다.

김 박사는 ‘북극항로 시대, 광양항의 기회’를 주제로 급변하는 국제 물류 환경 속에서 광양항이 확보해야 할 전략적 위치와 미래 가능성을 알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기념일을 맞아 시 공식 SNS를 통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협력해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광양항 투어’도 실시하는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광양항의 가치와 비전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보성군, 노인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 우수

노인 일자리 창출 국비 1억7천만원 확보

치매 예방 활용...내년 160명 고용 목표

보성군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비까지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

1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력해 추진한 ‘2025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에서 우수한 고용 실적을 인정받아 국비 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

〈사진〉

이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처음 도입해 국비 1억2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은 2년 연속 쾌거다.

앞서 군은 올해 66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고용·관리하며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은 ESG(환경·안전·복지) 분야에 노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

원하는 사업으로 ▲5개월 이상 근무 ▲월평균 임금 76만2천원 이상 ▲대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 기업에 1인당 연 최대 170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군은 이번엔 확보한 국비를 ‘보성600’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등록 경로당 447개소에 보급할 ‘어르신 보드게임 꾸러미’ 구입에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꾸러미는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을 돕는 놀이 도구로 활용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100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비 2억6천만 원 확보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어르신들이 단순한 부양대상을 넘어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보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흥군, 150억 규모 해양레저단지 조성한다

동아컴퍼니 MOU...관광 도약 발판

정남진 낚시공원 연계 호텔 등 구축

장흥군이 15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해양레저 관광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낸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김성 군수와 ㈜동아컴퍼니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민간 투자 기반을 확대해 지역 해양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동아컴퍼니는 총 150억원을 투입해 장흥군 일원에 ▲계류 시설 ▲캐빈 호텔 ▲캠핑장 등을 조성한다.

업체 측은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유람선 운영 등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

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기존 ‘정남진 해양낚시공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양관광 특화 지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동아컴퍼니 관계자는 “장흥의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해 레저와 관광이 어우러진 명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민간 투자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해양레저단지는 장흥군의 미래 관광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흥이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 기자